



신개념 친환경 학습놀이터 목포 '숲 유치원' 인기만점

유달·양을·입암산 등 3곳 운영...688명 모집에 1040명 몰려

목포시가 도시지역 어린이들에게 숲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숲 유치원'을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아의 눈높이에서 오감으로 숲을 체험하는 '유아 숲 체험학교'가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유아 숲 체험 지도사 6명이 배치돼 양을산 산림욕장, 유달산, 입암산 생태공원 등 3개소에서 11월까지 진행된다.

목포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 숲 유치원생을 모집한 결과, 36개소 1040여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688명을 선발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1개 반 12명(금지도사 1명

답임)으로 편성돼 단체별 40명으로 한정되며 1인 월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숲 체험 학교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2847명이 참여했다.

목포시는 올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은 물론 환경 감수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자연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과 지역학교·환경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맞춤형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연호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교육도 체험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숲 유치원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며 "단순한 체험·놀이는 물론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 공동체 협동놀이 등도 병행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6명의 지도사들은 이름도 자연 등에서 따온 명칭을 사용한다. 이연호씨는 솔방울, 최은경씨는 땅콩, 진운정씨는 산딸기, 이인숙씨는 거미엄마, 이미숙씨는 별꽃, 박민씨는 인디언 추장으로 불린다.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다.

목포시는 '숲 유치원'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해 양을산 산림욕장 내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4월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 아이들이 숲에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신개념의 친환경 놀이터로,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1.5ha

규모로 조성된다. 아이들이 숲의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숲 교실과 외줄로프 오르기 등으로 이뤄진 모험 놀이터, 몸으로 체험하며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공간인 숲속 놀이터, 대피소 등이 마련된다.

또 나무바람 숲, 꽃 숲, 물놀이 숲, 향기 숲 등을 테마로 한 6000㎡ 규모의 야외체험학습장도 조성된다.

최양선 목포시 산림담당은 "숲 유치원이 준공되는 하반기부터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창의성과 감수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익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 내달 22일까지 공모

목포시, 총 202억원 투입

목포시가 202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 공모분야는 ▲문화예술거리 조성, 작가의 집 조성, 청년창업 지원 등 공가·공실 활용방안 ▲관광루트 조성,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 등 테마 거리 조성방안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도심 활성화 방안 ▲기타 재생지역에 도입·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등 4개다. 공모기간은 4월 22일까지며, 응모자격 제한은 없다.

응모된 제안 중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장려상 10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배석인 목포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관점에서 창의성, 계획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적합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지역 환경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디어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http://www.mokpour.or.kr>)에서 접수받고 심사결과는 내달 29일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3일 목포시청에서 열린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최첨단 CT장비 도입...2mm 병변까지 조기진단 가능

목포기독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전남권 유일의 CT장비인 320채널 640슬라이스 최첨단 CT장비인 'Aquilion ONE ViSION'(사진)을 도입했다.

'Aquilion ONE ViSION'은 기존 CT검사 대비 방사선량을 79%까지 줄여 피복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켰으며, 단 한번의 촬영으로 16cm의 넓은 범위를 0.275초만에 촬영할 수 있다. 특히 0.5mm 간격의 초정밀 영상 640장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신속성도 갖춰 아주 작은 2mm의 병변까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또 부정맥, 빈맥, 비만 환자와 같은 촬영이 어려운 환자들의 검사도 가능하며, 교통사고 외상 환자 등 응급환자의 부상 부위 확인을 위한 전신 CT촬영도 10초면

가능해 응급상황시에도 매우 적합한 장비로 평가 받고 있다.

위희수 목포기독병원 대표원장은 "Aquilion ONE ViSION은 현재 국내 대학병원을 중에서도 보유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최신행 '첨단 장비'라면서 "최첨단 CT장비 등을 활용한 폭 넓은 정보를 획득으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진 수군 교대식 500년만에 재현

왜적을 경계하기 위해 세워진 목포진(일명 만호진) 수군 교대식이 500년 만에 재현됐다. <사진>

목포시는 지난 26일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행사 기념식을 갖고 수군 교대식과 함께 무예 시범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2016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목포진은 1439년(세종 21년)에 왜적을 경계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목포진 진성(城)은 1502년(연산군 8년)에 축성됐다.

수군 교대식은 경계근무를 마친 수군이 지휘관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순장패(경계근무자 신분증)를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한 뒤 임무를 교대하는 의식이다.

또 이날 선보인 무예시범은 조선 중기 이후 말기까지 무관들이 배운 24종류(武藝二十四般)의 무예를 기초로 한 것이다.

한편 수군교대식 재현 행사는 앞으로 유달산 꽃 축제, 항구축제, 목포시민의 날 등 오는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도시농업 육성 조례안 통과...도심텃밭 조성·지원 길 열려

목포시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노경윤 목포시의회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 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 제정으로 도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각종 유휴지와 자투리땅, 공공기관 옥상,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나 공간 등에 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누구나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보조금)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을 심의할 위원회는 목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노경윤 목포시의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취미, 여가, 자연 학습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장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하유성 ☎ 061-461-1800 H. 010-3631-03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크리에이티브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 후 조정가 H. 010-3119-6952